

비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면 생산성도 떨어지게 된다.



유 상 호 / 학부위목장
충북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한우비육의 경우 번식장애나 질병문제 등이 자주 발생하는 반면 홀스타인 수소를 비육할 경우는 우선 질병에 강하고 일당증체량이 우수하여 출하일수가 짧고 자금 회전이 빠르며 출하가 비교적 용이하다. 또한 밀소 구입이 쉽고 다두 사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82년부터 아버님이 사육하시던 한우3두를 물려받아서 85년 초까지 사육하며 번식우를 11두까지 사육하였었다.

홀스타인 비육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로는 한우비육의 경우 번식장애나 질병문제 등이 자주 발생하는 반면 홀스타인 수소를 비육할 경우는 우선 질병에 강하고 일당증체량이 우수하여 출하일수가 짧고 자금 회전이 빠르며 출하가 비교적 용이하다. 또한 밀소 구입이 쉽고 다두 사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평소부터 비육에 관심이 많았으며 축산진흥월간지에 현대농장이 소개된 것을 보고 홀스타인 비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목장을 시작하고 부터는 소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신병오회장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였다.

목장부지가 2,000평으로 우사면

적이 900평인 세동의 우사에서 육우 300두를 사육하고 있다. 평균 출하월령은 초유떼기부터 12.5개월 정도로 550~630kg사이에 가격이나 여러 여건에 따라서 출하시키고 있다.

사양관리 방법으로는 소들이 많은 양의 사료를 잘 먹고 빠른 시일 내에 출하체중에 도달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다 많은 사료를 먹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게 만드느냐 하면

1. 육우들도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량이 너무 적으면 소화력이 떨어져 영양의 흡수율이 떨어지고 섭취량도 감소하게 된다.

2. 사료의 기호성을 높여주어 섭취량을 늘려준다. 사료를 급여한 후 오랜시간이 지나면 기호성이 떨어지므로 사료를 자주 급여해 주어서 항상 신선한 사료를 섭취하도록

해 준다.

3. 편히 누워 되새김질을 충분히 하도록 해준다. 우사바닥은 깨끗하게 해주고 중소부터는 두당 3평정도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소들이 서로 경합하고 싸우지 않도록 해준다.

4. 소들의 환경, 생리 등의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준다. 쾌적한 환경을 잘 유지시켜주고 소음 등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준다.

5. 우사의 우상은 높이의 차이를 두어 급이조쪽으로 수분이 내려오도록 해주어 급이조 주변을 더 자주 치워주면 우사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물론 시공할 때는 노동력이 2배 이상 더 들어가지만 한번 시공해 놓으면 오래도록 소들이 깨끗한 곳에서 쉴 수 있고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육우는 판



질이 약해서 큰 소의 경우는 경사를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하는 계통출하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산지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다. 산지에서 직접판매하면 두수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판매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대신 소들이 좋아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육우 사육도 낙농못지 않게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한다. 육우목장은 일반적으로 사료자동급여기는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

설치비에 비해서 실효성이 크지 않고 비육우의 경우 개체별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며 단지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설치하기에는 설치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료를 직접 운반해 주면서 소들을 관찰하는 것이 관리하는데도 좋은 점이 있다.

비육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좋은 밀소를 구입해서 질 좋은 사료를 충분히 급여해주고 사양, 질병, 환경관리를 잘해주는 삼위일체가 잘 되어야 소들이 빠른 시일내에 보다 많은 증체가 될 수 있다.

비육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는 10%이상으로 폐사율이 높았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고 정성들여 송아지를 돌보다보니 요즘은 폐사율이 5~6%사이를 나타내고 있다. 송아지는 면적이 적으니깐 일교차를 줄여줄 수 있는 시설을 해주는 것이 폐사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밀소를 구입하다보면 가끔씩은 초유를 제대로 먹지 않은 탓에 면역성이 떨어져 쉽게 호흡기 질병에 감염되거나 설사를 일으켜 조기에 치료를 해주어도 성장속도가 다른 소들에 비해 떨어지거나 폐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체구는 크지만 태어난지 일주일도 제대로 채우지 않아 분유를 먹게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우리처럼 홀스타인 비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낙농가들이 건강한 밀소(수소)를 생산해서 초유를 충분히 먹인 후 공급해주어야 비육목장을 잘 하기 위한 가장 기초인 밀소를 얻을 수 있으므로 낙농가 없이는 목장을 하기가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초유떼기 송아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모은을 해줄 수 있는 송아지우사를 따로 설치하여 주고 어린아기를 키우듯이 한시라도 눈을 떼지 않고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호흡기나 설사증세를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해주는 것이 폐사율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낙농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송아지가 태어나면 일손이 바쁘더라도 초유를 충분히 먹여주고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키워주어야 분유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적고 폐사율도 그만큼 감소하게 됨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또한 분유떼기까지 키워주면 10~15만원정도는 더 받을 수 있으므로 바쁘더라도 2개월정도 더 키우는 것도 낙농가와 비육농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150평(100두) 규모의 초유떼기 전용우사를 신축해서 송아지를 사육할 계획이다. ☺

(연락처: 0431-211-4496)